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GP지위이관 방식을 통해 “비전스튜디오”의 운용종료 및 투자실현

국내 기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투자한 국내 종합 영상 콘텐츠 제공업체인 “비전스튜디오”, 7년
기한의 프로젝트 펀드의 만기에 따라 운용을 종료함과 동시에 투자를 실현함

배포일: 2024년 11월 1일

오케스트라 어드바이저스 코리아 유한회사 (이하 "오케스트라")가 설립한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이하 "OPE II")를 통해 투자한 (주)비전스튜디오(이하 “비전스튜디오”)를 포트폴리오사로 인수한 7년 기한의 프로젝트펀드의 운용을 완료함과 동시에 투자를 실현하였습니다. 비전스튜디오는 콘텐츠 개발, 제작, 에이전시 서비스, VFX, CG 이미지, 영상 후반작업 등 다양한 서비스와 영화 및 드라마 작품들을 브랜드사, 광고대행사, 엔터테인먼트회사, 제작사 및 스트리밍 플랫폼에 제공하는 국내 종합 콘텐츠 제공업체입니다.

2018년 2월, 오케스트라는 OPE II를 통해 비전스튜디오의 경영권을 인수하였습니다. OPE II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LP로 참여한 프로젝트펀드로 7년의 존속기간(2025년 1월 만기)을 두었으며 출자금액은 총 613억원입니다.

2024년 10월, OPE II LP들과의 합의를 통해 오케스트라는 OPE II의 정관에 기반하여 펀드의 GP지위를 국내 PE사인 ATU Partners에 이관하였습니다.

비전스튜디오의 인수 당시의 2018년도 연결매출은 116억원(감사기준)이었으며 오케스트라의 운용 하에 2023년 연결매출은 296억원(감사기준)을 달성하여 32%의 연평균성장률(2018년-2023년)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오케스트라가 7년간의 보유기간 동안 실현한 가치창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장하는 OTT 스트리밍 산업과 드라마 및 영화 콘텐츠 제작 산업의 VFX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총 6건의 추가인수합병을 통해 buy-and-build 전략을 전격 실행하였습니다. 광고 대행사부터 Netflix, Disney+와 같은 엔터테인먼트사 및 OTT 플랫폼까지 고객사를 다각화 하였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및 화웨이 등의 브랜드사에게 직거래하는 사업으로도 다양화하였습니다. 추가인수 6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7월 Blink Pictures(영화 VFX); 2010년 7월 라운드 VFX(영화 VFX); 2021년 5월 257스튜디오(드라마 VFX); 2022년 4월 보스콘텐츠(드라마 제작); 그리고 2023년 5월 씨제스 스튜디오(드라마 제작, 소수지분인수). 별도로 2018년 7월 인수한 스튜디오 투토끼(VR/AR)는 2021년 7월에 롯데정보통신에 매각하였습니다.

- 오케스트라는 비전스튜디오를 크게 4개 사업단위로 분할하여 각 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핵심인재들을 채용하였습니다. 4명의 사업부대표, CFO, CSO를 고용하여 최고 수준의 경영진을 구성하였습니다. 외부채용 및 추가인수합병을 통하여 시니어 전문 크리에이티브 인력, 컴퓨터그래픽(CG) 엔지니어, TV광고/드라마 프로듀서 등을 영입, 공격적인 매출 확장을 실현하였습니다.

오케스트라의 Jay Kim 매니징파트너는 “비전스튜디오는 드라마제작, VFX, postproduction 및 다양한 기술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 6건의 추가인수합병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였다. 비전스튜디오를 7년간 운영하면서 이런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며, “비전스튜디오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신규자본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새로 위임을 받은 GP가 신주를 투입하여 경영진의 공격적인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자문사로는 LAB Partners가 수행하였습니다.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개요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는 아시아에 기반을 둔 크로스보더 운용사로서, 중견·중소기업에 투자하여 ‘글로벌 챔피언’으로 성장시키는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입니다. 오케스트라는 투자대상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성장 관점에서 기업가치 창출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적용합니다. 또한 피투자기업의 경영진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회사의 유기적인 성장 및 지역 확장과 더불어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 사업을 제도화하고 국내외 추가인수합병을 추진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orchestraprivateequity.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는 information@orchestraprivateequity.com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튜디오 개요

비전스튜디오는 ‘토털 솔루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이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에이전시 서비스, VFX, CG 이미지, 포스트 프로덕션 서비스를 포함하여 브랜드 고객, 광고 대행사, 엔터테인먼트사, 드라마 및 영화 스튜디오(스트리밍 서비스 포함)에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전스튜디오는 35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회사로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100명 이상의 임직원을 두고 있습니다.